

제 5회 『본질적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크리스토퍼 J.코인 · 피터 J.벳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3명
2021년 6월 13일 경남 창원시
울타 스테디카페 석전동

6 시장 과정

밤새껏, 눈이 대학 캠퍼스에 내린다. 학생들이 다음 날 아침에 수업에 갈 때, 그들은 젖고 추워지는 것을 피하고자 가능한 가장 짧은 길을 찾는다. 첫 번째 학생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서, 눈에 일단의 발자국을 남긴다. 두 번째 학생은 첫 번째 학생을 따라, 첫 번째 학생이 남긴 판판하게 된 눈을 이용한다. 뒤의 학생들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함에 따라, 잘 규정된 길이 빠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설계가 아니라 합목적적 행동의 결과인 성과, 자생적 질서 (spontaneous order)의 예이다. 어떤 단일인도 사람들의 집단도 의식적으로 그 길을 계획하지 않았지만, 각인이 자기가 젖고 추워질 rksmsd성을 극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에 가는 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길이 나타났다.

무엇이 적합한 행동인가에 관한 일반적인 행위 규칙들은 자기들의 행동들이 자생적 질서를 낳는 사람들에게 의해 지켜진다. 비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일 수 있는 이런 규칙들은 사람들 사이 상호 작용의 틀을 잡고, 생기는 질서의 세목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들은, 상호작용과 교환을 촉진하고 가격들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재산권들에 근거하고 있다. 재산권들을 넘어, 시장들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광범위한 규칙들이 있다. -중략- 마지막 특징은 자생적 질서들이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점인데, 이것은 인간 이성을 사용해서는 그것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것 때문에, 그 질서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헌이나 더 넓은 질서 그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

시장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시장들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자기들이 어떻게 더 넓은 질서 패턴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장들이 질서 있는 결과들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덧붙여서, 자생적 질서들의 세목을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 질서들이 이 질서들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인간 마음을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을 훨씬 넘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미제스와 하이에크에 의해 사회주의 계산 논쟁에서 명백해졌듯이, 사람들이 시장들의 복잡한 결과들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시장들은 바람직한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바로 그 때문이다.

시장 과정을 넘어, 자생적 질서의 논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찰하는 많은 다른 현상에도 통찰력을 제공한다. 하나의 예가 언어이다. 어떤 단일의 개인이나 개인들의 집단도 언어를 설계하지 않았다. 대신, 언어는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고 의사 전달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생긴다. 그러므로 언어는 인간 행동의 결과이지 인간 설계의 결과가 아니다.

단순한 맥락들과 복잡한 맥락들 사이에 중요한 구별이 있다. 단순한 맥락들은 본질상 선형적인데, 이것은 투입들과 성과들 사이에 알려질 수 있고 통제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명백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이란 용어는 쉽거나 어리석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마음이 관련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들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서로 잘 맞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

람을 달에 보내는 특정 사항은 인간 이성과 지식을 사용하여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체제를 수성한다. 마천루의 건설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이 어려운 공학 문제들이지만, 그것들은 유능하고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대조적으로, 복잡한 상황은 끝이 열려 있음과 끊임없이 변화의 특징을 가진 상황이다. 복잡한 체제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들은 인간 이성으로 예상되거나 완전히 파악될 수 없는 성과들을 발생시킨다.

복잡한 상황이란 열린 결말과 같은 것이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이 예측 가능하다.

현실은 인간 생활을 특징짓는 수많은 자생적 질서의 복잡성에 비해 심지어 가장 훈련이 잘 된 전문가의 지능조차도 심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제한된 이성에 관한 지식 - F. A. 하이에크가 "부정적 지식(negative knowledge)"이라고 부른 것 - 은 그 자체 우리의 행동들을 안내하고, 설사 그 정책들이 최선의 의도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해로운 정책들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유형의 지식이다.

헌법 제정의 경우, 헌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일반시민이
그 헌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좋다.